

인도에 K-푸드, 싱가포르엔 한우·한돈… 수출길 넓힌다

aT, 인도 박람회서 950만달러 MOU
상반기 농축산식품 수출액 19% ↑
싱가포르에는 한우 84만달러 수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인도에서 K-푸드 박람회를 개최해 1000만 달러에 근접한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이끌어 냈다. 공사는 또 싱가포르에서 한국산 축산품에 대한 검역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우·한돈 업체에 대한 수출 지원에 나섰다.

9일 a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이달 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K-푸드페어'가 열렸다. aT는 B2B 수출 상담회를 주선하고, 인도·네팔·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바이어 79여 개사와 국내업체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했다.

이 자리에서는 ▲곰부차(음료류) ▲냉동김밥 ▲김치 시즈닝 소스 등의 품목이 큰 관심을 받으며 총 950만달러 상당의 MOU가 체결됐다.

상담장에서는 신시장의 통관·인증 등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했다. 또 리셉션에서는 한·인도 식품키즈'를 진행해, 인도 바이어와 국내 수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K-푸드 박람회

/aT

출업체가 상호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며 비즈니스 친밀감을 쌓도록 지원했다.

8월 1~2일 이틀간은 뉴델리 소재 대형 유통매장 엠비언스몰에서 소비자 체험행사를 열었다. 오픈키친존에서 떡볶이·김밥 등의 K-보식 품목을 선보였고, K-누들스테이션에서는 한강라면 조리기를 설치해 현지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한국 농식품과 함께 즐길 수 있

는 문화체험부스와 행사를 함께 운영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퍼스널컬러 테스트존과 ▲K-라이프스타일존 ▲한국 전통공연 ▲K-팝 커버댄스 등의 볼거리를 마련했다. 행사 말미에는 유튜브 고퇴경이 방문해 K-팝 랜덤포즈를 선보였다. 현장에는 방문객 약 1만4000명이 다녀갔다.

aT의 전기한 수출식품이사는 "인도는 거대한 인구와 젊은 소비층, 빠른 경제성

장을 바탕으로 K-푸드의 신시장,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K-푸드페어를 계기로 국내 수출기업의 인도 및 남아시아 권역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도 함께 넓혀 K-푸드 식품영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 1위·GDP 규모 4위의 인도는 젊은 층 인구 비중이 큰 만큼 K-푸드의 새로운 수출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aT는 향후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권역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대 인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전년동기기에 비해 18.9% 증가한 4063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라면 1344만달러(+62.7%), 과자류 27만 달러(+21.2%) 등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싱가포르에서는 한우·한돈의 인기몰이를 추진 중이다. aT는 지난해 11월 제주산 한우·한돈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 절차가 완료된 이후 현지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84만달러 상당의 한우가 싱가포르에 수출됐다. 한돈 역시 현지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한우·한돈은 올해 1월 싱가포르의 대표 명소인 마리나베이샌즈에서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우자조금·한돈자조금과 협업한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안성재 조리장이 참석한 바 있다. 공사는 싱가포르 식품안전 당국, 수입·유통 관계자,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프리미엄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어 초기 인지도를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프리미엄 외식시장을 겨냥한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현지 프리미엄 외식업계와 손잡고 제주산 한우국수전골, 한돈바싹불고기 등 신메뉴도 개발했다. 이달 30일까지 DRI M(드림), GU:UM(구움), Bedrock Bar & Grill(베드락 바앤그릴), 주신정(Ju Sh in Jung), 소댕(Sodeng), COTE Singapore 등 6개 외식업체가 참여한다.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과 협업해 한국 프리미엄 전통주 페어링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1~6월 기준 한국산 농·축산품의 싱가포르 수출액은 1억108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8.2%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농협하나로, 입점장려금 3억 부당 수취

판촉사원 서면 약정 없이 파견 근무
공정위, 과징금 4억6200만원 부과

농협하나로유통이 매장 입점장려금 3억원가량을 부당하게 받아 쟁건 데 대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농협하나로는 시장에 출시된 지 무려 8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신상 명목'으로 장려금 지불을 납품업체들에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봤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안은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납품업자에게서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한 행위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도합 3억2366만원을 수취했다.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넘은 187개 상품에 대한 장려금이다. 납품업체 총 43곳에서 받아 냈다.



세종 공정위 청사

/뉴시스

농협하나로는 2021년 1월 업무처리매뉴얼을 개정해,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없이 자기의 사업장인 하나마트에 새로 입점했을 때로 설정했다. 그로부터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받도록 했다. 출시 후 무려 8년9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출시 6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는 행위는,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 기업은 또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간으로, 문제는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는 것.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파견종업원 수와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의 파견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도 적발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이고 만연한 대표적인 유형들인 서면지연교부, 판촉사원 파견시 서면 미약정 등을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故우장춘 박사 67주기’ 日 거주 후손 방한

국내 원예·종자산업 발전 토대 닦아
농진청, 한·일 원예산업 협력 강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우장춘 박사 작고 67주기(8월10일)를 맞아 일본에 거주 중인 후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이들과 한국·일본의 원예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지난해 11월 고인의 후손과 교류 기반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故) 우장춘 박사의 농업 원예 분야 업적을 되새기고 양국 간 원예 산업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 원예·종자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농업 과학자이다. 광복 이후인 1950년 귀국해 채소 종자 자급과 품종 개량 연구를 이끌었다. 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국내 원예 연구와 종자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종의 합성' 이론을



故우장춘 박사

/농진청

정립해 세계 육종학 발전에도 기여했다. 방한하는 인원은 손자·증손자 등 10인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일본에서 성장하고 연구 활동을 이어간 고인의 후손들 또한 일본에서 자라고 있다.

이들은 이달 10일 수원 여가시간에 있는 우장춘 박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기제사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한다. 이어 농촌진흥청장과 환담하며 우 박사의 업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하반기 신입 274명 채용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 담당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하반기 신입직원 274명을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공개 채용이다.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하반기 신입직원 입사지원서'를 받는다. 공단은 이번 채용을 통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또 신규 채용 인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 및 업무상 질병처리기간 단축 등의 정책사업 추진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채용 인력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품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한층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입사지원서는 12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받는다.

최종합격자는 11월24일 발표 예정이며 12월14일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2주간 에너지절약 캠페인 운영

안쓰는 기기 차단 등 행동요령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에너지절약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극한 폭염 및 산업체 조업률 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번 집중 홍보기간,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는 거리 운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명동·홍대 등 전국 주요 상점가 26곳이 대상이다.

전력 사용을 높이는 개문냉방을 자제하고 안쓰는 기기와 조명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 냉장고 문 닫기,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절약의 전략'이라는 에너지절약 국민참여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중 홍보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전기생활 전략을 전파할 계획이다.

제23회 '에너지의 날(8월22일)'에는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행동 독려 및 에너지 절약 운동도 진행한다. 22일 밤 9시에 광화문, 시청 등 주요 명소 등지에서 10분 소등 행사가 실시된다. 또 전국 10개 이상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에너지절약 운동을 개최해 전국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